

서울域外金融市場設立에 관한研究

閥相基

《目次》	
I. 序	3. 잠재적 利用者의 利害측면에서 본 서울域外金融市場의 競争力
II. 域外金融市場의 定義	4. 域外金融市場設立과 우리 나라의 利害
III. 서울域外金融市場의 成功可能性	
1. 域外金融市場의 成功要件	
2. 通貨母國의 利害 및 對應戰略	
	IV. 結

I. 序

최근 서울을 國際金融 中心地의 하나로 개발하기 위한 토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체로 國際化의 초기단계에서는 實物去來의 國際化, 특히 수출의 증대에 종력을 경주하다가, 國際化의 성숙단계에 이르러서는 國際實物去來에 수반하는 國際金融市場이 개발되지 않고서는 實物去來마저 지속적인 成長이 어려워지므로 세계 각국에서는 自國을 國際金融의 中心地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변인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싱가폴 및 홍콩이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해 있고 필리핀, 대만에서도 域外金融市場을 開設하였으며 동경도 가까운 장래에 국제금융의 中心地로 부각할 전망이 커져서, 유치경쟁이 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들과의 경쟁관계에서 서울을 국제금융중심지로 부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전통적으로 보면 국제금융의 中心地는 國際收支가 혹자인 나라에서 성행하여 自國法貨의 國際貸出을 주로 하는데, 2차대전 이전의 런던금융시장 및 1960년 이전의 뉴욕금융시장이 좋은例이며, 일본의 국제수지 혹자 및 엔의 국제화에 힘입어 동경금융시장의 출현가능성이 논의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유로카런시 시장의 출현으로 국제 금융의 中心은 法貨國에서 이탈하여 稅率이 낮고 국제금융의 下部構造가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옮겨졌다. 이에 따라, 파운드의 국제지위 하락으로 국제金融中心으로서의 위치에 위협을 받던 런던金融市場이 다시 전날의 영광을 회복하였고, 급기야는 비거주인의

거래에 限한다는 단서를 붙여 稅率을 낮추고 外換 및 資本去來를 自由化 시켜주는 소위 域外金融市場이 싱가풀 등지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지의 적자가 아직 상존하며 외채의 부담이 크고 外換 및 資本自由화도 되어있지 않아서 원貨의 國際化가 요원한 현시점에서, 서울이 가까운 장래에 국제金融市場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非거주자의 거래에 관해서만 예외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外換 및 資本自由化를 허락하는 域外金融市場을 서울에 設立할 때 과연 이미 존재하는 여러 기존 國際金融市場과 경쟁 할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할 따름이다. 아시아 지역에 이미 國際金融센타가 수적으론 많은 것이 사실이나 홍콩시장은租借權의 문제가 그 장래에 어두움을 드리우며, 필리핀市場은 이미 失敗하였고, 대만시장은 中共과의 政治的 관계에서 장래를 예측하기 힘들며 일본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국제金融센타로 부상은 할 것이나 短期의으로는 外換 및 資本自由化 추진에 문제가 있으므로 서울이 국제금융센타로서 대두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本稿에서는 第 2 節에서 먼저 域外金融市場의 定義를 내리고 第 3 節에서는 서울 域外金融市場의 成功要件을 通貨母國의 利害關係와 잠재적 利用者の 利害關係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第 4 節에서는 서울 域外金融市場設立이 推進되기 위한 당면과제를 살피는 것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II. 域外金融市場의 定義

域外金融市場이란 단어는 金融專門家들 사이에는 이미 잘 알려진 用語이나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用語임에 틀림이 없다. 더구나 英語로 external financial market도 域外金融市場으로 번역되어 있고, offshore financial market도 域外金融市場으로 번역되고 있어 혼란의 여지가 많다.

external financial market란, 去來되는 通貨가 法貨인 나라의 金融統制가 미치지 않는 地域에서 발달된 金融市場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internal financial market와 반대되는 概念이다. 일명 유로金融市場이라 불리우는 이 市場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째, 金利面에서 域內市場보다 有利해야하며, 둘째, 非居住人에 대해서 당해 通貨소지에 대한 制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域外(external)市場에서 域內市場에서보다 貸出金利는 낮고, 預金金利가 높을 수 있는 것은 域內에서의 金融統制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6가지 要因에 기인한다. 첫째, 域外市場에서는 지불준비의 부담이 없어 모든 資產을

收益性貸出에 사용할 수 있다. 둘째, 域內銀行과 같이 收益性이 낮은 政策金融을 할 필요가 없다. 세째, 預金利子決定에 실링(ceiling)이 없다. 네째, 단일거래규모가 커서 단위당 거래비용이 낮다. 다섯째, 각국의 銀行이 경쟁을 하므로 단위당 預·貸金利差異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여섯째, 주로 稅率이 낮은 金融市場에서 去來하므로 稅前預貸金利差가 작더라도 관계없다. 사실 이와 같은 6가지 要因은 모든 나라의 通貨에 대해서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域外去來가 域內去來보다 有利하다는 結論에 도달할 수 있으나 실제로 유로커런시 시장은 약 70% 이상이 미국달러이며 아직도 유로엔이 성행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경우 비거주인이 엔을 소지하는데 많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offshore financial market란 金融去來가 일어나는 나라에서 볼 때, 거래대상이 비거주인들일 경우 國內金融去來에 적용되는 外換 및 資本去來에 대한 제약과 세금을 예외적으로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金融市場을 지칭하며 거주인이 거래대상이 되는 onshore 去來에 상대되는 概念이다. 따라서 offshore financial market는, 法貨國의 金融統制도 받지 않고 또한 去來가 일어나는 나라의 통제도 받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金融市場으로서 external Market의 下位概念이다.

예를 들어 미국달러의 중개업무가 원칙적으로는 미국 域內金融市場(Internal market)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域內市場에서의 金融統制를 벗어나기 위해 일단 域外市場으로 이탈된다고 할 때 세계 어느나라에서 이런 域外金融이 일어날 것인가? 이때 제일후보지는 과거 파운드거래로 이미 國際金融中心地의 위치를 공고히 하면서 많은 金融人力을 보유하고 있고 通信, 會計士, 法律家 등 國際金融에 필요한 모든 下部構造를 갖추고 있는 런던市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런던과 같은 자연적인(natural)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域內市場을 이탈한 미국달러의 仲介업무를 自國으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aggressive)으로 유리한 金融環境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시 두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그 나라의 實物基盤이 약하여 國際金融誘致가 國民總生產의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경우, 나라 전체를 통하여 稅率을 낮추고 外換 및 資本自由化政策을 채택하여 國際金融業務를 유치하려는 것으로 Bahamas 같은 金融市場이 代表的인 例일 것이다. 이러한 金融市場에서는 실제적인 資金預金 및 資金貸出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他國際金融市場에서 실제로 貸出契約이 이루어지고 다만 낮은 稅率을 利用하여 稅金부담을 줄이기 위한 tax haven으로서 booking center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둘째는 나라 전체에 있어서는 外換 및 資本自由化에 대한 制限이나 또는 金融去來에 대한 높은 税率을 유지하되 國際金融業務를 誘致하기 위하여 非居住者의 去來에 대해서만은 offshore banking unit라는 計定을 만들어서 모든 去

來를 자유화해주고 稅率도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金融 center이다. 이런 offshore banking unit가 다른 國際金融센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地理的으로 資金供給者들에 가깝던지 또는 資金需要者들에게 가까워야 하는데 前者の 경우를 collection center라고 하며 Bahrain 金融市場이 代表의인 例이고, 後者를 funding center라고 하며 싱가폴, 필리핀, 대만 등이 代表의인 例가 될 것이다. 한편 1981년부터는 域內市場으로부터 이탈하여 自國通貨가 外國金融機關에서 거래됨으로 인해서 고용증대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損失을 막기 위해 自國內에서 自國의 金融統制를 받지 않는 offshore banking unit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뉴욕에 설립된 IBF(international banking facility)이다.

〈表 1〉 external market와 offshore unit와의 관계

external market	natural market	London
	aggressive market	Bahamas(booking center)
	offshore unit	Bahrain (collection center) Singapore Taiwan (funding center) Philippines New York (IBF)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형태의 國際金融市場의 設立이 可能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第5節에서 서울域外金融市場의 경쟁력을 論議할 때 보다 자세히 다를 것이다나 基本골격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London이나 Hong Kong과 같이 자연스럽게 外換 및 資本自由化를 채택할 수 있는 단계에 있지도 않으며 또한 Bahamas와 같이 國際金融去來를 誘致하기 위해人為的 혹은 舉國的으로 外貨 및 資本自由化를 채택할 수도 없으므로 非居住者에 限해 外換・資本自由化를 허용하고 또한 金融去來에 대한 稅率도 낮추어지는 offshore banking unit를 設立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offshore에서 미국달러 仲介業務를 할 경우 일본을 제외한 주변국가들이 아직도 경제발전상 外資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므로 funding center의 役割을 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만약 일본 엔이 國際化되고 日本 엔의 external market이 活性化 된다면 日本 엔의 collection center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설사 동경에 IBF타입의 offshore unit가 設立된다고 하더라도 마치 룩셈부르크가 獨逸居住人 대상으로 external market 업무를 하듯이 서울 金融市場도 日本居住人 e對象으로 xternal market 업무를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다.

III. 서울 域外金融市場의 成功可能性

1. 域外金融市場의 成功要件

서울에 域外金融市場을 개설했을 때 과연 成功할 수 있을까? 보통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非居住人이 왜 여타 國際金融市場을 利用하지 않고 서울 域外金融市場을 選好할 것인가를 分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 域外金融市場의 相對的 競爭力 分析은 域外金融市場의 成功要件中一部分에 지나지 않으며 特定域外市場이 成功하기 위해서는 그 域外金融市場을 사용할 잠재적 고객의 利害와 더불어 그 域外金融市場을 개설하는 나라(host country)의 利害도 分析해야 하며 또한 域外金融市場(offshore financial market)이 external market의 범주내에서만 성장가능하므로 거래되는 通貨가 法貨인 나라(home country)의 利害關係로 分析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서울 域外金融市場의 成功可能性을 알아보기 위해 通貨母國의 利害, 잠재적 利用者의 利害, 우리나라의 利害順序로 分析해 보고자 한다.

2. 通貨母國의 利害 및 對應戰略

미국 달러의 external market인 유로달러 시장의 존재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혹자는 유로달러 시장 때문에 미국 通貨政策의 獨立性이 상실되었으며 또한 國際收支에도 惡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 주장의 理論的 根據는 매우 희박하다.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純效果는 알 수 없지만 다만 불확실성의 여지는 넓어졌으므로 미국에서도 유로달러 市場을 統制하고자 하는 노력을 傾注했던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유로달러 市場을 統制하는 방법으로서 첫째 미국내 金融市場에 적용하는 모든 金融統制를 철폐하는 방법과 둘째 유로달러가 去來되는 市場에서 미국과 協力하여 통제하는 方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前者は 미국내 金融產業의 안정성 보호와 通貨政策의 수립상 완전한 金融統制 철폐란 불가능하므로 실행하기 힘들며 後者は 세계 주요 기준金融市場의 國家들과 協力이 되어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國際金融業務를 誘致하기 위해 새로운 나라들이 域外金融市場을 제공할 可能성이 있으므로 또한 實現不可能하다. 따라서 어떤 나라의 通貨가 國際去來 通貨가 되고 또한 非居住人이 당해 通貨를 자유로이 소유하게 되면 그 通貨에 대한 external market가 존재하게 되는데 대해서는 通貨母國으로서도 統制할 힘이 없게 된다.

다만 external market가 자유로운 市場이라 效率的이기는 하지만, 만약의 경우 금융긴축이 일어나 유로은행들이 資金難을 겪게될 때 國內金融機關과 같이 中央銀行의 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通貨母國의 태도가 external market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보면 1970년대 중반 유로은행인 Herstatt銀行이 資金難을 겪었을 때 獨逸의 中央政府가 도움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獨逸系銀行들이 유로去來를 하는데 信用이 많이 떨어졌으며 1980년대초 이태리 암브로시아노銀行의 루셈부르크支店이 資金難을 겪었을 때, 이태리 中央銀行이 도움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로銀行들의 성장이 주춤했던 경험이 있다. 또한 유로은행의貸出行爲를 通貨母國이 직접 統制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본국의 銀行과 유로銀行들의 聯結財務諸表 작성을 의무화하여 間接的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 가령, 루셈부르크는 獨逸銀行들이 國내에서 적용되는 자본충족도(capital adequacy ratio)의 規制를 벗어나기 위한 external market으로 많이 利用했으나 最近 獨逸政府가 獨逸系銀行의 資本充足度 계산에 있어 유로去來를 하는 支店까지 合한 聯結財務諸表를 기준으로 統制하기로 함에 따라 루셈부르크市場에 큰 타격을 준 것이다.

通貨母國이 external market 發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한가지 方法은 자국內에 offshore로 external market를 設立하는 것이다.前述한 바와 같이 國內市場의 金融統制가 없어지면 그 通貨에 대한 external market가 성장할 基盤이 약해지나, 全國的으로 金融統制를 없애기는 힘들므로 非居住者들간의 거래에 대해서만例外的으로 資金去來에 대해 稅率을 낮추고 金融統制를 철폐 또는 완화시킨다면 外國으로 이탈된 自國通貨去來를 自國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美國달러에 대한 IBF의 출현으로 전세계에 산재하여 달러去來를 主業무로하던 群小國際金融市場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特히 美國에 인접하고 있던 Bahamas의 경우 그 타격은 더 커졌다. 물론 Bahamas의 경우는 뉴욕의 IBF와 성격을 달리한다. 뉴욕의 IBF는 미국측에서 볼때 비거주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Bahamas는 미국측에서 볼때의 거주인 즉 미국인의 預金 및 貸出을 域外市場條件에서 다룰 수 있어 뉴욕의 IBF와 경쟁할 여지가 남기는 한다. 그러나 이마저 미국에서 범죄에 사용된 資金出處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預金者 성명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서 Bahamas 金融市場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美國달러의 external market을 살펴보았으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엔의 external market의 장래도 큰 관심거리이다. 그 이유는 일본엔이 國際去來通貨로 부각할 가능성이 클뿐더러 만약 일본엔의 external market이 가능할 경우 지리적으로나 文化的으로나 우리나라가 日本엔의 external market로 성장할 가능성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때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은 첫째, 미국보다도 國內金融機關과 個別的 關係가 깊은 日本이 과연 external market이 급성장하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둘째, 日本도 美國과 같이 日本內에 IBF형식으로 日本측에서 본 非居住者들의 資金去來를 위한 offshore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와 세째, 우리나라가 일본엔에 대해 external market로 성장할 때, 한국을 모든 면에서 경쟁자로 보는 일본이 수수방관을 할 것인가 아니면 國際租稅面에서 不利한 原則을 適用하여 한국이 日本엔에 對한 external market로서 성장할 가능성을 拂拭시키려고 노력할 것인가 等等이다.

3. 잠재적 利害측면에서 본 서울 域外金融市場의 競爭力

前述한 바와 같이 現在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國際金融業務를 自國에 誘致하려는 경쟁을 하고 있어서, 全世界에 수많은 國際金融市場이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에는 싱가폴, 홍콩, 대만은 물론 일본과 호주도 國際金融市場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環境하에서 서울域外金融市場이 設立되었을 때 어떤 要因으로 既存 또는 새로이 탄생할 國際金融市場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分析은 國際投資家 또는 國際借入者들과 같은 잠재적 利用者의 측면에서 分析하는 것이 妥當하나 실제로 國際金融市場에서 仲介業務를 하는 主體는 金融機關이므로 金融機關들이 왜 特定金融市場으로 몰리는가 하는 측면에서 分析하기로 한다.

金融機關이 全世界중 어느 곳에 支店을 設置할 것인가 하는 결정은 일반적으로 ① 事業의 機會가 있는가 ② 金融業務의 下部構造가 어떠한가 ③ 當該金融市場이 安定되어 있는가 하는 세 가지 要因에 의해서 좌우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각 要因별로 우리나라의 競爭力を 살펴보고자 한다.

(1) 事業의 機會(business opportunities)

域外金融市場에서 活動하는 金融機關의 收益源泉은 첫째, 銀行의 경우 非居住者間의 資金仲介(intermediation), 둘째, 證券會社의 경우 會社債의 發行을 통한 仲介業務, 셋째, 外換業務취급, 네째, 保險業務취급 등이다. 서울域外金融市場에서 短期間에 위에 열거된 모든 거래가 취급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는 非居住者간의 資金仲介業務에 치중하고 이러한 업무를 보완하기 위한 外換業務가 수행될 것이다. 非居住者간의 資金仲介業務中에서도 선진국의 借入者가 구ته여 서울域外金融市場을 利用할 뚜렷한 이유가 없으므로 서울域外金融市場이 目標顧客으로 삼을 수 있는 對象은 東南아시아에 있는 資本輸入國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 이미 싱가폴과 홍콩을 중심으로 아시아달러市場이 개발되어 있어서 인도네시아 및 인도 등의 國家들이 서울域外金融市場을 利用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필리

판은 비록 영업이 잘 되지는 않지만 마닐라域外金融市場이 있고 대만역시 自體的으로 域外金融市場이 있으며 호주와 일본도 獨自의인 域外金融市場設立을 고려하고 있어서 現在 상황에서 서울域外金融市場이 誘引할 수 있는 非居住者 借入先은 거의 전무하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의 희망이라면中共이 經濟開發을 하기 위해서 國際金融市場에서 큰 借入者로 나타날 때 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可能性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中共이 단순히 國際借入民을 위해서라면 홍콩市場이 租借權문제로 위축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金融市場보다는 이미 성숙된 싱가폴市場을 選好할 可能性이 짙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한국과中共의 實物去來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금거래도 實物去來가 일어나는場所에서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울金融市場을 싱가폴市場보다 選好할 可能性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日本에 國際金融市場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假定과 또한 中共과 韓國間에 政治的 문제를 벗어나 經濟的 교류가 상호의 밀음하에서 크게 신장된 후라는 假定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서울域外金融市場이 아시아의 여러 金融市場에 比較할 때 不利한 點은 借入先의 확보뿐만 아니라 預金先의 확보면에서도 심각하다. 域外金融市場에서의 去來는 대체로 대규모의去來이므로 金融機關들이 自體預金을 가지고貸出하는 것이 아니라 資金需要가 있다고 할 때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 銀行間去來로 借入하여貸出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타金融市場과의 연락망만 잘 짜여져 있는 경우 自體預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效率的인 國際金融市場이라고 하더라도貸出하는 모든 資金을 銀行間去來에 依存할 수는 없고 當該 域外金融市場이 자체적으로 預金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원활하게資金仲介業務가 이루어지는 것이 現實이다. 가령 싱가폴의 경우 資金貸出의 80%는 銀行간去來를 通해 資金을 確保하지만 약 20% 정도는 인근 국가들의 中央銀行의 예금 또는 부유한個人들의 預金을 通해 確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싱가폴도 域外金融市場設立의 初創期에는 그 信用度가 낮아서 自體預金을 誘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싱가폴 政府에서 自國外貨保有庫의 일부분을 이 시장에 預入해 주었으며, 대만의 域外金融市場設立에도 初創期에 資金確保가 어려워 대만정부 外貨保有庫의 일부분을 投入하였던 것이다. 서울에 域外金融市場을 設立할 경우에도 적어도 初創期에는 우리나라 政府에서 外貨保有의 일부분을 投入하여야 할 것이나 現在 國際收支가 적자이고 外債負擔이 큰 입장에서 非居住者에게貸出하기 위해서 外貨保有를 投入한다는 것은 論理上 成立하기 힘들다. 따라서 서울域外金融市場의 先結條件으로서 國際收支의 褐자기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실 싱가폴이나 대만이 域外金融市場을 設立할 時點에 이들 국가가 國際收支의 黑字基調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看過

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借入先의 確保 및 預金先의 確保 등 資金의 仲介業務面에서 볼 때 서울域外市場이 既存의 여타 國際金融市場보다 不利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域外市場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業務인 外換去來의 側面에서도 서울域外市場이 기존의 여타 國際金融市場보다 不利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外換管理法이 엄격하여 자유로운 外換去來가 힘들다는 것은 域外市場去來에 限해서 外換自由化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制約條件이 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서울에는 外換業務를 할 수 있는 國際金融人力이 絶對的으로 부족하며 또한 time zone의 側面에서 보더라도 런던金融市場과 영업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서 換포지션管理가 힘들다는 결정적인 弱點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울의 域外金融業務를 非居住者들간의 미국달러仲介業務 및 資金運用上의 外換去來로 限定할 때에는 서울域外金融市場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이 弱하다는 結論에 이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각도를 바꾸어 서울域外金融市場에서 약간 변형된 거래 또는 새로운 形態의 去來를 개발한다면 그 전망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域外市場의 去來란 그 定義상 非居住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去來를 對象으로 하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 非居住者借入先을 찾기 어려운 경우, 域外金融市場의 金融機關들로 하여금 한국居住者들에 대출을 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서 계속 外貨資金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既存外債를 refinance하는데 필요한 外貨資金需要도 많다. 지금까지는 資金調達을 위한 실체협상은 서울에서 일어나더라도 booking은 外國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출해주는 外國金融機關의 立場에서도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借入하는 우리나라의 企業 또는 銀行의 입장에서도 필요없는 여행경비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居住者에게 대출하는 것은 onshore去來이므로 外換 및 資本自由化가 적용되지 않고 거래별 인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서울域外金融市場의 設立初期에는 이 域外金融市場에 參與하는 金融機關에게去來量을 確保시켜주는 方法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라면 현재에도 外國金融機關의 支店이 居住者에게 外貨貸出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所得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태여 域外金融單位(offshore banking unit)를 따로 設立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점이다. 그러나 길게 봐서는 OBU가 아닌 支店에서 居住者外貨貸出에는 稅金을 내고 居住者外貨貸出에 對해서는 租稅減免을 한다는 것은 衡平의 原則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꾸어야하며 따라서 外國 金融機關의 입장에서는 外貨貸出의 경우 支店에서 貸出하기보다는 OBU의 형태로 대출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域外金融市場을 設立하고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은 그 域外金融市場에서 기대되는 거래량이 적어서 外國金融機關이 OBU 설치를 꺼려할 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50여개의 外國金融機關이 居住者에 對한 원貨貸出 및 外貨貸出 등의 onshore 業務수행을 위해 서울에 支店을 설립하고 있다. 따라서 外國金融機關이 域外金融業務를 위해서 서울에 사무소 또는 支店을 設立해야 한다면, 고정비를 충당할 수 있는 去來量이 부족하여 기피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onshore업무로 固定費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금융기관들이 서울에 OBU를 설립하는 데는 년간 지불해야 하는 \$10,000에서 \$20,000 사이의 license fee정도의 새로운 경비가 發生할 뿐이다. 따라서 서울域外金融市場이 설립될 경우 적어도 OBU를 신청하는 金融機關이 모자라서 失敗할 可能性은 적다고 하겠다.

앞에서도 간헐적으로 지적되기는 했지만 서울域外市場이 長期的으로 國際金融市場에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면 이는 미국달러仲介業務가 아니라 日本엔의 仲介業務에 기인할 것이다. 미국달러仲介業務는 이미 세계에 주요 國際金融市場이 많고 아시아地域에서도 싱가풀이나 홍콩의 競爭力を 이기기 힘들다. 다만 일본엔의 경우 external market인 유로엔 시장이 런던을 중심으로 있기는 하지만 서울이 지리·문화·언어상 런던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으며 아시아의 기존 國際金融市場보다도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일본엔이 국제거래의 표시통화로서, 혹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外貨保有通貨로서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또한 일본정부가 外換去來 특히 非居住者の 短期엔화거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경우, 국제적인 엔화 仲介業務의 비중은 커질 것이며 서울域外市場은 이러한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이 동경에 非居住者の 엔화仲介業務에 대해 IBF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서울域外市場의 역할이 더 클 것이다. 설사 IBF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동경 IBF가 다룰 수 없는 日本居住者들간의 엔화증개업무는 서울域外市場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國際金融市場이 난무하는 가운데 특정 國際金融市場은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특센부르크는 그 전문성을 독일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듯이 서울域外市場도 궁극적으로는 엔화증개업무에서 전문성을 찾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

(2) 國際金融業務의 下部構造

域外金融市場이 설립될 수 있는 사업의 기회(business opportunities)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域外金融業務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國際金融業務를 수행할 下部構造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며 하부구조중 특히 國際通信網의 便宜性, 國제적인 會計法人 및 辯護士 事務室의 존재여부, 國際金融人力의 존재여부 등이 크게 문제가 된다.

a) 國際通信網의 便宜性

국제전화를 하려면 전화교환양에게 부탁을 한 후 한참 기다리던 것이 최근 몇개국에 대해서는 직접 다이얼을 돌려 통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제통신망은 많이 발전했다. 그러나 아직도 國際電信, 國際電話의 料金이 너무 비싸며 또한 나라에 따라서는 전화교환양을 통해야 하는 불편도 있다. 시시각각 國際金利와 換率의 변동하는 現 國際金融市場의 상황에서 國際通信網이 잘 짜여져 있지 않으면 城外金融市場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다행히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개최를 즈음하여 전국가적으로 國際通信網을 改善시키려는 계획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國際通信施設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국제金融業務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國際通信網의 改善과 더불어 國際金融專用의 通信網施設이 또한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SWIFT會員加入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는 벨기에 국내법에 의거하며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이며 현재 세계적으로 저명한 각 主要銀行들은 전부 가입해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홍콩, 일본, 싱가폴 및 대만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SWIFT는 國際金融通信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安全性과 迅速性이 뛰어날 뿐 아니라 원가가 저렴하여 국제적인 換送金, 은행간의 자금조달, 外換賣買, 증권교역, 신용장의 발급·수정 및 지불, 회계장부사무의 확인 및 통지에 이르는 모든 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서울域外金融市場이 國際金融市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SWIFT加入이 必須要件이라 하겠다. 현재 국내에서 通信業務를 전담하고 있는 Data通信에서 SWIFT加入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울域外金融市場設立에 즈음하여 SWIFT加入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하겠다. SWIFT加入 이외에도 국제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外換 및 金利時勢를 즉각적으로 전달해주는 텔리터미널(teleterminal)과 화폐仲介商의 전문 line인 money broker hot line 등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나 이들은 사업의 기회가 있으면 곧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城外金融市場設立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b) 國際的인 會計法人 및 辯護事務室의 존재여부

서울에서 비거주자들끼리의 자금仲介業務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계 各國의 회계원칙과 세법에 밝은 회계法人과 국제계약에 따른 諸문제를 다룰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과거 20여년간의 해외차관을 통해서 차관계약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습득한 법률사무실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와 관련된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였을 뿐 능동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국제금융 package를 만들 때 야기될 수 있는 法律知識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구상하고 있는

서울域外金融市場은 비거주자만의 거래를 원칙으로 하여 租稅 등에서 특혜를 준다고 할 때 offshore去來와 onshore去來간의 구별 및 이 두 去來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間接費用의 配分문제 등은 전문적인 會計法人과 法律事務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域外金融市場을 設立함과 동시에 國제적인 會計法人 및 변호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전제될 때 가장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외국會計法人 및 辯護事務室이 우리나라에 支店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최선의 方法은 우리나라 회계법인과 변호사무실이 자체능력을 개발하여 域外金融業務를 전담하는 것이나 이는 단시일內에 이루어 질 수는 없으며 설사 우리측에서 볼 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외국金融機關들이 믿어줄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싱가풀의 경우 최근까지 외국인 변호사무실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이 때문에 域外金融業務成長이 늦어졌던 것 또한 사실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령 域外金融業務만을 위해서는 外國의 會計法人 및 辯護事務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서울域外金融市場의 업무량이 적어도 초기에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세계적으로 유명한 會計法人 및 辯護사무실이 域外金融業務만을 위해서 서울에 진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만약 이들이 onshore 業務마저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것은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c) 國際金融人力의 有無

서울域外金融市場의 운용을 위해서는 國제적인 통신망의 설비 등 hardware가 必要한 것 이 사실이나 國際金融業務의 근본적인 成敗는 국제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人力이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물론 초기단계에 있어서 최고급의 국제금융人力은 國제적으로 훈련이 된 외국은행가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제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뒷받쳐줄 정도의 國際金融人力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國際金融人力의 必要性은 域外金融市場業務만이 아니라 金融國際化의 대명제를 위해서도 모든 金融機關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누차 강조하면서도 國際金融人力의 양성이 잘 되지 않고 있는 要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國際金融業務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어에 능통해야하는데 영어에 능통한 人力은現在 대부분이 보수가 좋은 종합상사의 수출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구체적인 dealing업무에 들어가면 늘 사용하는 전문용어들이 있어서 영어를 잘 못하고도 기계적인 dealing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dealer들이 換率과 國際金利變動을豫測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정보를 흡수 소화해야 하는데 이에는 언어實力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둘째, 國際金融人力은 현재 企業측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70년대 이후 금융기관이 대기업보다 인기가 떨어져 장차 國際金融人力으로 키울만한 인재를 구하기 힘들다. 이는 비단 영어의 언어실력뿐 아니라 전체적인 역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째, 아직도 해외여행 및 연수가 특혜로 간주되고 있어서 금융기관내에서도 해외로 國際金融研修를 보낼 때 과장급 정도에서 보내는 경향이 있다. 國際金融의 海外研修는 가기 전의 경력보다 갔다와서 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바 너무 나이들어 보내는 것은 效用性이 낮다고 하겠다.

넷째, 國際金融人力은 短期間의 研修로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근무를 통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의 보수기준이 generalist기준이어서, 전문요원을 대우할 수 있는 보수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담당업무의 변동없이 dealer로서 계속 키울 수 있어야 하겠다.

다섯째, 악순환의 연속이지만 현재 金融機關에서는 國際金融業務가 실제로 수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dealing업무를 훈련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할 수 없어, 다른 부서에 배치됨으로 인해서 지식의 측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여섯째, 국내에 국제금융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거의 없다. 물론 大學에서 국제금융론을 강의하고 있으나 이는 활용제도 등 정책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연수원에서 國際金融을 몇 과목 강의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인력의 필요량에 비하면 절대부족이다. 외국에서의 연수는 필요불가결이라 하더라도 국내연수기관 또는 대학에서 교육도 있어야만 國際金融人力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국제금융을 강의하는 교육기관은 물론 金融機關을 강의하는 특수학교도 없는 형편이므로 차기에 金融人力양성을 위한 특수학교 設立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싱가풀에서는 최고로 우수한 인력이 國際金融을 전공하고 또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최고의 보수와 승진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업무수행이 활발히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 및 취업기회의 여부가 國際金融人力 수급에 가장 큰 관건이라 하겠다.

4. 域外金融市場設立과 우리나라의 利害

特定 域外金融市場이 당해 host國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host國家의 經濟規模 및 經濟發展段階와 設立되는 域外金融市場의 性格 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므로 일반화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域外金融市場이 設立되면 法人稅, 개인所得稅, 원천세와 域外業務許可의 license fee 등으로 재정수입이 늘고, 域外金融業務에 종사함으로 인해 고용이 늘며 또한 선진金融技術이 移轉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域外金融市場을 設立할 때 租稅혜택

을 주는 정도 또는 license fee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따라 틀릴 것이며 또한 국제금융업무에 종사하는 고용인원의 전체 經濟에 고용된 고용인원에 대한 비중에 따라 그 중요성에 차이가 나며 booking center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고용인원과 선진 금융技術의 移轉정도가 틀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설립될 城外金融市場의 구체적인 형태 및 기대되는 去來量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論하기 어렵다. 다만 단시일내에 만약 서울에 城外金融市場이 設立된다면 우선 去來를 유인하기 위해 큰 租稅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므로 재정수입상의 이득은 없을 것이며 당분간은 달러화의 非居住者間 去來量이 극히 적을 것이므로 고용의 증대 또한 기대하기 힘들고, 변형으로 onshore去來를 협약한다고 하더라도 現行의 國際金融技術以上이 이전되기 힘들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단기적인 이익을 바라기는 힘든 형편이라 하겠다. 오히려 城外金融市場을 완전히 치외법권적으로 設立하여 租稅혜택과 外換·資本의 自由化를 협용해 줄 경우 onshore업무가 城外金融業務로 처리되어 재정수입의 손실은 물론 자금유출의 가능성마저도 있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이 단기적으로 보면 서울의 城外金融業務는 당장에 큰 이득은 없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實物去來의 量的 成長에 比해 金融產業이 이에 대한 質的 成長을 이루지 못하여 구조적 不均衡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구하는데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現시점에서 城外金融市場의 設立이 金融產業의 체질改善에 자극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서울城外金融市場의 設立과 최근 金融產業界, 政府 및 學界에서 論議되고 있는 金融制度의改善, 金融自律化, 金融革新, 金融國際化의 과제들이 어떤 關係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기는 하지만 基本的으로는 金融產業이란 동일한 對象을 分析하므로 엄밀하게 分類하기는 힘들다.

일반적으로 金融制度의 改善이란 universal banking과 sound banking의 양극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第1金融圈과 第2金融圈과의 業務分擔에 對한 論議를 주로 하며 金融自律化란 金利의 自律화와 貨出포트폴리오決定을 포함한 은행 경영의 自律化를, 金融革新이란 새로운 金融商品開發을 주로 討議의 對象으로 하는 것이 사실이나 다만 金融國際化에 대해서는 그 論議對象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다.

金融의 國際的 去來는 물론 세계 제2차대전 전부터 성행했으며, 주로 英國의 런던을 중심으로 貿易金融 및 國際貸出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진국의 金融機關들이 金融國際化에 큰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末부터 커지기 시작한 유리커런시市場의 태동과 시장을 같이 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即 60년대에 들어와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속도가 둔화되어 자국내의 자금수요가 줄어들 시점에서 선진국들의 金融機關들 특히 미국金融機關들은 成長戰略上 金利 및 貸出포트폴리오에 통제를 받지 않는 유로카런시市場을 통해 國際貸出을 늘여왔으며 이러한 國際都賣金融 나아가서는 國際小賣金融을 金融國際化의 과정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金融國際化란 國內貸出을 주로 하던 銀行이 해외지점망의 확충을 통하여 國際貸出의 比重을 늘려가는 성장전략을 金融國際化의 段階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선진국들중에서 일본의 경우 金融國際化는 그 의미가 약간 相異하다. 일본의 金融機關 역시 日本企業들의 國際貿易 및 國際投資가 늘고 있고 국제수지흑자基調가 안정되어 國際貸出業務 확대를 통한 金融國際化의 必要性이 강조되고 있지만 1984년부터 일본에서 金融國際化라는 단어는 이러한 外向的 國際화보다 國內 金融, 資本市場의 國際化, 在日外國金融機關活動의 규제완화 및 엔의 國際化 등 內國의 國際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일본과 실물거래상 무역수지를 균형시키려는 노력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자본거래의 측면에서 일본의 개방정책을 강요한데서 기인하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국제화란 범주에 광의로는 國內資本市場의 개방, 협의로는 在韓外國銀行支店活動의 規制완화가 토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論議되고 있는 域外金融市場設立은 위에서 논의한 金融產業의 發展方案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우선 域外金融市場은 그 定義상 어떤 나라의 金融統制도 받지 않는 시장이어야 하므로 자연히 universal banking system을 택하게 되는 것이 상례이다. 即 이 시장에서는 예금은행과 투자은행의 구분이 없을 뿐더러 또한 종합금융인 merchant banking업무도 자연스러워야 할 것이다. 아무리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한정 시킨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역외금융시장의 金融機關으로 참석을 할 때 onshore에서는 예금은행 또는 投資銀行으로 特化하고 域外金融市場에서는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다고 할 때 야기되는 혼란은 크다. 둘째로 역외시장에서는 金利가 완전히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며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능력이 경쟁의 기초가 된다. 다만 域外金融市場과 onshore와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으므로 단기간에 있어서 역외시장에서 外國資金에 대한 금리의 자유결정이 국내금리결정에 과급될 영향은 적다고 하겠다. 세째로 금융국제화의 측면에서 볼 때 역외금융시장의 존재는 국내금융기관이 국제금융업무를 배우고 실습하는데 좋은 시험장이 되므로 國內金融機關의 國際化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나 短期間에 있어서 域外金融市場에서의 國內金融機關의 역할이란 극히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역외金融市場은 國內外銀支店에게 또하나의 특혜적 영업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비난

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이는 분명코 비거주자간의 去來라고는 하나 이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onshore 거래와의 불분명한 구별로 인하여 성급한 國內金融市場의 개방만을 촉진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 있다.

IV. 結

最近 우리나라에서는 貿易自由化, 外換自由化 및 資本自由化 等 自由化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다. 원칙론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國際去來의 自由화들은 國內企業의 國際競爭力, 國內市場의 自由化, 國際收支의 均衡 등 모든 여건이 성숙한 후에 施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同時에 看過할 수 없는 事實은 國內企業이 國際的으로 진정한 競爭力を 가지기 위해서는 實物去來와 資本去來가 國際化됨으로써만 可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自由化에 대한 論議는 黑과 白의 論理로써 絶對的인 自由化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靜態的으로 與件이 未成熟되었다고 自由化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自由화와 與件造成은 서로가 原因과 結果가 될 可能성이 있는 補完의 關係에 있다는 點을 認識해야 하겠다.

域外金融市場設立에 관한 論議도 一種의 自由화에 대한 討論이다. 구태여 域外金融市場을 設立하지 않더라도 自然的으로 國內經濟全體가 成熟하여 外換 및 資本去來의 自由化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與件은 未備하나 域外金融市場을 設立하여 진정 自由로운 國際金融去來를 國내에서 域外로나마 운영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기대할 것인가는 討議의 便宜上 提示되는 극단적인 代案들일 뿐이며 現實的인 政策的인 決定은 두 極端의 선상에서 現實과 未來의 發展方向을 감안한 段階的 조치를 추구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域外金融市場이 設立되기 위해서는 基本的인 下部構造로서 通信施設, 金融人力들이 거론된다. 이 중 通信施設은 이미 86아시안 게임, 88올림픽 게임을 계기로 크게 發展할 계획이 있으므로 크게 장애가 되지 않으나 金融人力면에서는 國際的인 감각을 가진 金融人, 변호사, 회계사 등의 人力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런 現實下에서 당장 域外金融市場을 設立한다면 外國金融人力에의 依存度가 지나치게 높을 것이다.

通信施設 및 金融人力의 下部構造위에서 서울域外金融市場이 여타 國際金融市場들과 競爭關係에 있어서 어떤 通貨의 仲介業務로 特化할 것인가도 큰 과제이다. 미국달러가 國際金融去來에서 가장 큰 市場 占有率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달러의 仲介業務가 第1의 목

표가 되겠으나 이는 세계적인 金融市場인 뉴욕, 런던 등에 비해 서울이 불리한 입장임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아시아 지역에서도 싱가폴, 홍콩 등 아시아 달러市場과 더불어 1년 内에 設立될 등 경 國際金融市場에 比해 競爭力이 열위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最近 日本의 國際化가 진전됨에 따라 實物去來나 資本去來에 있어서 比重이 커지고 있고 따라서 國際的인 엔貨金融去來의 比重이 커질 전망에 따라 서울域外金融市場이 日本의 貨中介業務로 特貨할 可能性이 높다. 물론 東京에 IBF가 생기면 非居住者間의 엔貨中介業務를 많이 흡수할 것이다. IBF가 去來할 수 있는 中介業務에는 限界가 있으므로 서울域外金融市場의 엔貨中介可能性은 높다 하겠다.

한 나라의 金融市場이 國際金融市場으로 成長하기 위해서는 오랜 時日을 必要로 하며 이는 例外的인 外換·資本 自由化를 허용하는 域外金融市場을 설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울域外金融市場의 경우 下部構造나 여타 國際金融市場과의 競爭力を 감안할 경우 非居住者 사이의 去來만을 目標로 한 域外金融市場을 당장 設立한다는 것은 成功의 可能성이 극히 희박하며 우리나라가 海外借款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면적적으로 居住者와의 去來를 許容하는 것은 去來量 확보면에서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나 域外와 域內去來를 分離하여 관리하는 점에서는 外換管理上 不作用이 야기될 可能성이 크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볼 때 엔貨中介業務로 特化하는 등으로 여타 國際金融市場과 충분히 競爭할 수 있는 可能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부터 國際金融人力의 육성은 물론 國際收支均衡을 바탕으로 한 外換 및 資本自由化的 폭을 넓혀가면서 域外金融市場設立에 對한 具體的인 法律化 조치 및 관리方法에 對한 研究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崔生林, “國際金融센터 및 諸類似用語의 定義에 관하여”, 漢陽大學校 『經濟研究』 第5卷 第2號, pp. 265~285.
- [2] 대만 財政部, “대만을 極東의 金融中心으로 설립하는 문제의 可能性 및 實施計劃에 대한 研究”, 1983. 6.
- [3] I.H. Giddy, G. Dufey and S. Min, “Interest Rates in the U.S. and Eurodollar Market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Band 115, 1979, pp. 51~67.
- [4] Grant, Charles, “Luxembourg: The Bank Branch Out”, *Euromoney*, Sep. 1983, pp. 141~159.

- [5] Hall, William, "IBFs: The First Two Years," *the Bankers*, August 1983, pp. 43~45.
- [6] Kim, Yoo-Hwan, "Asian Dollar Market in Singapore: It'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of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nto Tomas, Manila, Philippines, May 1982, p. 255.
- [7] Park, Yoon S., "The Economics of Offshore Financial Centers,"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Winter 1982, pp. 31~35.
- [8] Sandler, Linda, "The Final Days of Offshore Banking", *Institutional Investor*, June 1984, pp. 61~66.